

## 우리 교회의 성례식

### 고린도전서 12:13-14

기독교에는 몇가지 성례들이 있습니다.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식에는 할례와 결례가 있었습니다. 할례는 몸에 언약의 표식을 새기는 것이고, 결례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.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, 이 예식들을 따르지 않습니다. 서방 교회는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지내는 성례들이 있습니다. 이들은 통과례와 같은 것으로, 사제들이 진행해야 했습니다. 현재의 개신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례인 침례와 주의 만찬만 지냅니다. 이 성례는 통과례의 성격과는 다릅니다. 성례는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이며,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.

### 침례

침례식은 예수 믿음을 고백한 개인이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. 즉,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일입니다.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으로, 죄를 씻는 세례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. 옛사람은 죽고,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. 침례는 공동체 앞에서 입술과 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침례를 통해 한 공동체, 즉 교회의 일원으로 속하게 됩니다.

### 주의 만찬

주의 만찬은 공동체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는 행위이며,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대신해 만찬에 함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임을 인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공동체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, 지체들의 역할이 다르듯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다른 기능들을 가진 지체들이 어우러져 함께 일합니다.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들로서, 포도주를 마실때 예수님께서 피흘리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합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례들은 많이 형식화되었지만 침례식과 주의 만찬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, 교회에 대한, 다른 지체들을 향한 중요한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.